

<낙천등운>의 텍스트 특징과 형성 배경에 대한 고찰

이지영(서울대)

1. 서론
2. <낙천등운>의 양면성
2.1. 중국 소설과의 유사성
2.2. 우리 소설과의 친연성
3. 소설 구성의 상호텍스트성
3.1. 텍스트의 결합
3.2. 이전 소설의 차용
4. 텍스트 형성 배경에 대한 추론
5. 결론

1. 서론

<낙천등운>은 창경궁 낙선재에 소장되었던 5권 5책의 한글소설이다.¹⁾ 선행연구에서는 청루의 풍속과 생활양상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고 포주의 인간상이 사실적으로 그려진 흥미로운 작품으로 소개한 바 있으며²⁾, 또 여타의 고전소설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인간상이 등장하고 당대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속주의적’인 소

1)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책을 직접 확인해 본 바, 각 권의 장정은 모두 동일한 재료와 방식으로 이루어져있지만, 권5의 표제는 ‘낙천등운 오’이라고 해서 ‘낙천등운’으로 표기한 나머지 권과 차이가 있으며 글씨의 필체도 권5가 나머지 권들과 차이가 있었다. <낙천등운>은 1971년에 이화여자대학교의 한국어문학연구회에서 교주를 병행하여 영인한 바 있으며, 1980년에는 아세아문화사에서 『필사본 고소설전집 20』으로 영인하였다.(책을 확인하였을 때 권4와 권5의 뒷부분 몇 페이지가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장정에 사용한 실이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간에 책을 풀어 다시 묶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정병욱, 「이조말기소설의 유형적 특징」, 『한국고전의 재인식』, 홍성사, 1979.

설로 분석된 바 있다.³⁾

그러나 새롭고 독특한 작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중국소설의 번역이라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조희웅은 중국 正史上의 실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이들 인물의 사적이 소설의 내용과 부합되는 점이 많은 것으로 보아 원전이 중국소설일 가능성에 대해서 거론하였으며,⁴⁾ 중국소설 연구자인 박재연 역시 <낙천등운>을 중국 재자가인 소설로 추정하였다.⁵⁾ 국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송성욱도 <천수석>이나 <청백운>, <낙천등운>은 중국소설의 번역으로 의심될 만큼 중국소설적인 요소가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⁶⁾

<낙천등운>의 국적에 대해서 이미 정병욱은 작품에 나타난 과거제도가 중국보다는 조선에 가깝고 ‘도미부인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창작소설로 결론 내린 바 있다.⁷⁾ 그러나 ‘도미부인 이야기’는 번역 혹은 번안과정에서 삽입될 수도 있으며 <낙천등운>에 나타난 과거제도는 오히려 중국의 제도에 부합하기 때문에⁸⁾ 두 가지 근거만으로는 우리소설로 확신할 수는 없다.

사실 우리나라 소설은 대부분 배경이 중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중국소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소설과 유사하다고 해서 중국소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우리소설이라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우리소설로 알려졌던 작품이 중국소설이거나 중국소설의 번안임이 밝혀진 일도 적지 않다.⁹⁾

그렇다고 해서 중국소설과 우리소설의 변별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상택, 「<낙천등운 고>, 『한국고전소설의탐구』, 중앙출판, 1981.

4) 조희웅, 「낙선재본 번역소설 연구, 『국어국문학』 62-63, 국어국문학회, 1973, 259면.

5) 박재연, 「고소설의 한중 관계-낙선재본 번역소설을 중심으로, 한국 고소설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문, 1997.

6) 송성욱, 「<천수석>의 텍스트 결함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 1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23면.

7) 정병욱, 앞의 논문, 167-168면.

8) 이에 대해서는 이 글의 2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9) 창작소설로 추정되던 낙선재 소설 중에서 <인봉소>와 <진주탑>, <형세언>을 비롯한 7종은 뒤에 번역임이 밝혀지기도 하였다.(조희웅, 앞의 논문, 259면.) 이밖에 <재생연전>처럼 이후에 번역소설로 밝혀진 작품도 있다(정병설, 「낙선재본 <재생연전> 연구-번역양상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16, 1991 참조)

중국소설과 우리소설 간에는 상이성도 분명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작품의 국적을 가리는 일이 어려운 까닭은 중국소설과 우리소설의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대개는 양쪽의 특징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번역되더라도 우리 소설의 전통에 따라 변형되고 또 우리소설로 창작하면서 중국소설을 차용하게 되면 국적을 가린다는 것이 무의미해지게 된다. 이 경우 국적을 따지기보다는, 국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어려운 텍스트 자체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낙천등운> 또한 국적을 가리기 힘든 소설 중의 하나이며, 이 작품에 대한 국적논란은 텍스트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적 논란이 야기된 텍스트 자체의 특징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이러한 텍스트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추정하고자 한다.

2. <낙천등운>의 양면성

2.1. 중국 소설과의 유사성

<낙천등운>은 처음 발견될 때부터 중국소설로 의심받았던 작품이지만, 정작 이 작품이 중국소설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¹⁰⁾ 그만큼 그동안 <낙천등운>의 국적 논의는 다소 추상적이었다. 그러므로 먼저 <낙천등운>이 중국소설로 의심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¹¹⁾

우선 <낙천등운>에서 사용된 어휘가 당대 우리나라 소설과는 거리가 있다. 작품에서 청루의 의미로 사용되는 ‘연화촌(煙花村)’이나 기생을 의미

10) 조희웅이 역사적 인물인 다수 등장하는 등의 사실성을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낙선재본 소설 중에서 번역이 의심되는 예로 든 것이 본격적인 논의를 펼친 것은 아니었다.(조희웅, 앞의 논문, 259면.)
11) 조희웅은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는 점이 번역소설로 볼 수 있는 단서로 보았다.(위의 논문) 그러나 조희웅이 <낙천등운>과 함께 예로 든 <화씨충효록>은 <창선감의록>의 개작임이 밝혀지는 등, 중국의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중국소설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따로 검토하지 않는다.

하는 ‘분두(粉頭)’, 縣試나 府試의 1등을 의미하는 ‘案首’ 그리고 시험관인 ‘宗師’ 등은 우리 소설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이며, 주로 중국 번역소설에서나 자주 등장한다.¹²⁾ 또한 ‘정마란’, ‘후선’, ‘석묘랑’, ‘가도삼’, ‘혜랑’ 등의 등장인물의 이름이 중국풍이라는 점에서도 혹시 중국소설의 번역이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작품에서 등장하는 지명서술도 우리 소설보다는 중국 명·청대 소설과 유사하다. 우리 소설, 특히 장편 대하소설에서는 지명이 다소 막연하게 서술되는 경향이 있는데¹³⁾, <낙천등운>에서는 “남경 양주부 홍화현”이나 연화촌이 있는 “청주부 수광현”, “북경 대명부 원성현”, “송강부 청포현”, “(하남부) 낙양현” 등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작품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명나라 행정제도와 일치한다.

무엇보다도 <낙천등운>을 중국소설로 의심하게 하는 대목은 다른 소설에서는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적나라하게 묘사된 ‘연화촌’ 풍경이다.¹⁴⁾ 청주부 수광현에서 청루를 운영하는 후선과 초마 부부는 양가의 처녀를 돈으로 사와 창녀로 만드는데, 창녀 되기를 거부하는 여자는 모질게 보채고 큰 매로 쳐서 그 와중에 못 견디고 죽는 이도 있으며 서역에서 사온 요약을 술에 타 먹여 창녀로 만들거나 창가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을 시켜서 겁탈한 뒤에 창녀로 만들기도 해서 돈을 많이 번다.

또한 후선은 인물이 준수한 주인공 왕석작을 양아들로 삼아 데리고 다니면서, 미녀가 보이면 며느리로 삼는다는 구실을 내세워서 미녀를 사서 창녀로 만들기도 한다.¹⁵⁾ <낙천등운>의 여주인공 동예아와 왕석

12) 이들 어휘가 중국 번역소설에서 사용된 예는 박재연 편, 『중조대사전』, 선문대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2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13) 예를 들어 <완월회맹연>에서는 주인공 집안이 ‘남문 밖 태운산 취연항’에 있다고 하였는데, 현실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다.(김진세 교주, 『완월회맹연』, 서울대출판부, 1987, 30면.) 또한 <소현성록>에서는 주인공 집안이 “변경 난문 밧 스십니의 혼 뉘” 즉, 자운산에 있는 장현동이라고 하였는데, 지연숙은 장현동이 허구적인 공간이라고 하였다.(지연숙, 「<소현성록>의 공간구성과 역사인식」, 『한국고전연구』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52면.)

14) 이상택은 인신매매를 업으로 삼는 창가의 인물들이 종래의 고대소설에서 볼 수 없는 이질적인 면모를 보인다고 하면서 이질성을 변모해가는 당대 사회의 반영이라고 하였지만(앞의 논문, 159-160면), 이 글에서는 이를 중국소설과의 유사성으로 보고자 한다.

15) “닌가(隣家) 녀즈로뵈 주인하니 그 녀지 싱의 풍치를 여어 보고 깃거 조츠를 원호는지라. 병페 은 오십냥으로 혼인홀 시 원의 그 녀즈다려 닐오더 ‘오지 병이 이서 친영을 못한다’ 흥

작의 결연도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후선의 여동생이자 기생 어머인 후마는 왕석작에게는 배필을 얻어준다고 하면서 실은 창기로 만들 속셈이었고, 왕석작의 인물됨을 보고 혼인한 동예아는 후마가 창기들이 남자들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주자 자신이 창가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결하려고 한다.¹⁶⁾

선행연구에서는 이 같은 ‘연화춘’ 풍경에 대해서 화폐경제적 현상이 반영한 당대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¹⁷⁾ 그러나 <낙천등운>에 묘사된 ‘연화춘’의 모습이 과연 당대 조선의 기방 풍속을 반영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능화는 포주가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나라의 창기제도와 妓夫가 존재하는 우리의 기방제도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⁸⁾ 妓夫는 자본을 대고 기녀를 통해서 이윤을 얻는다는 점에서는 포주이지만, 주로 한 사람의 기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낙천등운>의 초마나 후마처럼 여러 명의 기녀를 고용한 것은 아니었다.¹⁹⁾ <외입장이 격식> 등의 자료를 보아도 한 사람의 기생이 여러 패의 손님을 한꺼번에 받는 데서 발생한 기방의 풍속을 엿볼 수 있다.²⁰⁾ 또 야담인 <嚇美醜憎>에 개성상인이 만금을 출자하여 술정을 차리고 기녀를 고용하는 내용이 있지만²¹⁾, 여기에서도 상인이 고용한 기녀는 한 사람이어서 중국의 제도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 때의 기방의 모습은 『板橋雜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 余懷는 뻑뻑하게 들어선 기원에 손님이 들어서면 기생어머미 나와 맞이하고 곧이어 산해진미와 함께 여러 기녀들이 손님을 유혹하는 광경을 묘

니 첩으로 마즈미러라”(1회)

16) “가마니 쇼저의 귀다혀 저희 규구(規矩)를 니르며 교티를 가르쳐 추악(醜惡) 망측한 말을 다하니.....분명이 몸이 창가(娼家)의 오함(汚陷)혼 줄 제닷고”(2회)

17) 이상택, 앞의 논문.

18) “按他國娼妓之制에는 必有一個某甲호야 率養數十娼女호니 是名淫坊이오 亦云青樓라. 又置 婆子호야 周旋於顧客之間이늘 惟我朝鮮에는 京城之妓는 養有漢子호니 名曰 妓夫라.”이능화, 『조선해어화사』, 한남서림, 1927, 138면.

19) 조선 후기 妓夫는 별감이나 대전 별감 등 중간계층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이들 중간계층은 기방을 장악하면서 기방의 주 고객이기도 하였다.(강명관, 「조선후기 서울의 중간계층과 유흥의 발달」, 『민족문화사연구』 2, 민족문화사학회, 1992 참조.)

20) <외입장이 격식>의 설명과 내용에 대해서는 정병철, 『나는 기생이다』, 문학동네, 2007, 126-144면 참조.

21) <嚇美醜憎>, 『이조한문단편집』(이우성·임형택 편), 일조각, 1978, 73-80면.

사하였다.²²⁾ 또 張岱은 『陶庵夢憶』에서 기생이 호객행위를 하여 손님을 데려오면 정담하던 사람이 이를 알리고 안에서 접대할 사람이 나오는 邢溝의 청루의 광경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기생이 기생어미로부터 매질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는 신세를 동정적으로 서술하였다.²³⁾ 그렇다면 이능화의 지적대로 명나라와 조선의 기방 풍속이나 형태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낙천등운>에서 묘사하고 있는 연화촌의 풍경은 중국의 창루 풍경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을 배경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기방 풍속이 서술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나라 소설에 그려지고 있는 기방의 풍속은 명나라보다는 조선의 기방풍속에 가깝다. 우리 소설에서는 여러 기생을 불러 놓고 연회를 베푸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항주자사 황여옥이 여러 기생을 불러와 벌이는 <옥루몽>의 잔치 장면에서 양창곡은 기생으로 참여한 강남홍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남홍은 기생어미에게 고용된 기녀가 아니라 관아에 소속된 관기이기에 소주자사의 명에 따라 잔치에 참여한 것이었다.²⁴⁾ 우리나라에서 기녀는 기본적으로 官에 소속된 기녀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²⁵⁾ 또한 <구운몽>에서는 낙양 소년들이 계섬월 등 기생을 불러 모와 주루(酒樓)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누대를 떠나는 양소유에게 계섬월은 다리 남쪽에 분칠한 담 밖에 앵도화 성히 핀 집이 자신의 집이라고 한다.²⁶⁾ 거처를 따로 두고 요청이 있을 때 연회에 참석하는 모습은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풍속에 가깝다. <옥루몽>이나 <구운몽>에서 기생어미의 존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

22) 진동원, 최수경·송정화 역, 중국, 여성 그리고 역사, 박이정, 2005, 301면.

23) 위의 책, 304면.

24) 양창곡은 객점에서 만난 두 소년에게서 “明日蘇州刺史가 設大宴於歷江亭 呼고 集蘇州杭州之文人士士 呼야 作歷江亭詩 呼야...江南三十六州中妓樂이 杭州 第一이오 杭州三十六教坊中 妓女之有名者는 江南紅이라”(原本諺吐玉樓夢 卷一, 『활자본고소설전집』, 아세아문화사, 1976, 25면) 하는 말을 듣는다. 이 대목에서 강남홍이 教坊에 소속된 官妓임을 알 수 있다.

25) 기녀가 관청에 소속된 존재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광국, 「기녀담·기녀등장소설의 기녀 자의식 구현 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0, 93-98면. 참조

26) “성등 모든 공지 일홈난 창기를 모화 봄경을 귀경하다 呼거늘.....다리 남녘히 분칠헌 담 바깥에 잉도해 성히 핀 집이 곳 첩의 집이라”(『구운몽』, 고려서림, 1986.)

처럼 우리나라 소설은 대부분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작품에 나타난 청루의 모습은 중국보다는 조선의 풍속에 가깝게 그려진다.

반면에 명·청대 중국소설에서는 기생어미가 여러 창기를 거느리고 영업을 하는 청루 풍경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낙천등운>에서 돈을 위해서 인신매매와 살인을 서슴지 않는 娼母의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왕경룡전>으로 변안되기도 하였던 <玉堂春落難逢夫>에서도 나타난다. <玉堂春落難逢夫>에서 기생어미는 양가의 처자인 옥당춘을 사들여서 돈을 버는데 옥당춘이 말을 듣지 않자 매질을 하고 자신에게 쓸모없어진 옥당춘을 상인에게 팔아넘긴다.²⁷⁾ 이러한 창모의 모습은 <金雲翹傳>에서도 나타난다.²⁸⁾ 주인공 취교는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450냥의 빙금을 받고 마객인에게 시집가는데, 마객인은 바로 기생어미의 남편으로 취교를 창녀로 만들기 위해서 혼인한 것이었다. 취교는 자신이 청루에 빠진 것을 알고는 이를 거부하지만, 기생어미는 그런 취교에게 가혹한 매질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자 좋은 곳에 시집보낸다고 달랜 후 초경이라는 청루의 심부름꾼을 시켜 취교를 유혹하게 한다. 취교는 초경과 함께 달아나려다 배신당하고 기생어미의 협박과 회유 끝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창기가 된다.

취교가 마객인과 혼인하여 창기가 되는 장면은 <낙천등운>에서 후선이 양아들 왕석작을 내세워서 良家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후 창녀로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며, 또 동예아가 왕석작과 혼인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낙천등운>에서 동전체는 빙금을 목적으로 조카인 동예아를 창가 포주

27) <玉堂春落難逢夫>가 <왕경룡전>으로 변안되고 <청년회심곡>으로 변개되는 과정은 박일용의 선행연구에서 자세히 고찰된 바 있다.(박일용, 「<왕경룡전>계 애정소설의 흐름과 사회적 성격」, 『조선시대 애정소설』, 집문당, 1993, 302-350면.)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소설 <玉堂春落難逢夫>에서 기녀가 창모에 매인 종속적인 존재인 데 반해서 <청년회심곡>에서는 스스로 기방을 차린 독립적인 존재라는 점이다. 이러한 변모가 가능했던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방풍속과 제도의 차이 때문이 아닌가 한다.

28) 靑心才人의 <金雲翹傳>은 王翠翹 고사를 바탕으로 한 소설로, 박재연은 完山 李氏의 『中國小說繪模本』에 나오는 <王翠翹傳>이 바로 <金雲翹傳>이라고 하였다.(박재연, 「完山 李氏 <中國小說繪模本>에 대하여」, 『한국고소설사의 시각』, 국학연구원, 1996, 209면) <金雲翹傳>은 中華書局에서 간행한 ‘古本小說叢刊’에 영인되어 있는데 베트남 시인이 쓰놈으로 번역한 것이 다시 우리말로 번역되었기에 참조하였다.(최귀묵 역, 『취교전』, 소명출판, 2004.) 한편 왕취교 고사는 <金雲翹傳> 이전에도 여러 작가에 의해 작품화되었다.(최용철, 「王翠翹 고사의 변천과 <金雲翹傳>의 작품 분석」, 『중국어문논총』 16, 중국어문연구회, 1992 참조.)

후선의 양아들 왕석작에게 시집보내려고 한다. 그 때 마침 동전채는 빛으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되고 동예아는 삼촌을 구하기 위해서 미리 왕석작에게 사백 오십 금을 받아 문서를 써주고 왕석작과 혼인한다.

연화춘 풍경 외에, 과거제도의 측면에서도 <낙천등운>의 내용은 중국과 유사하다. 주인공 왕석작은 松江府 淸浦 지현 왕치의 집에 머물던 중 왕지현의 권유로 松江府 上海縣의 縣試에 가서 1등인 案首가 된다.²⁹⁾ 그리고 다시 향시에 나가서 解元으로 급제하여 경사로 가서 會試를 보고 임윤과 함께 글공부를 하다가 殿試를 본다. 왕석작이 縣試를 보고 합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리가 바로 宗師이다. 왕석작이 松江府 上海縣에 가서 본 시험에서 宗師인 鄭公이 公道를 행하여 試券을 일일이 받는 바람에 고을 호강자제들이 술수를 부리지 못하였다고 하였다.³⁰⁾ 學政官, 提學이라고도 하는 宗師는 명·청대에 지방의 과거시험을 위해서 중앙에서 파견하는 관리였는데,³¹⁾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였다.³²⁾ 이밖에 왕석작이 縣의 시험을 통과하여 鄉試를 보고 회시를 거쳐 전시에서 급제하여 진사가 되는 것은 명, 청대 과거시험 절차에 정확히 부합한다.

그런데 작품에 반영된 과거제도가 선행연구에서는 오히려 <낙천등운>의 국내 창작설을 주장한 근거로 제시되었다. 정병욱은 <낙천등운>에 반영된 과거제도가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과거제도에 가깝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근거로 유리결식하는 주인공 왕석작이 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다음의 화정의 위지현이 청포지현 왕치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신의 아들과 왕석작이 함께 과거시험에 응시하도록 청하는 대목을 보면 왕석작의 ‘入學’에 관한 어구가 발견된다.

29) <낙천등운>에서는 왕석작이 상해현에서 향시를 보았다고 하여 향시를 두 번이나 치르는 것으로 나오는데, 상해현에서 보는 시험을 향시라고 한 것은 ‘현시’의 오기로 보인다.

30) “맞춤 종수(宗師) 정공(鄭公)이 지조(才操)를 사랑하고 공도(公道)를 행(行)하여 시권(試券)을 일일(一一)히 친히 바드니 용수(用事)를 못하여 왕공지(王公子) 과연 안수(案首)의 거(居)하고”(7회)

31) 金諍, 강길중 역, 『중국문화와 과거제도』, 중문출판사, 1994, 263면.

32) 정약용이 『경세유표』의 <科擧之規>에서 “현(縣)에는 교관(敎官)을 두고 성(省)에는 제학(提學)을 두면 과거에 전문(專門)으로 공부할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학정관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어,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정(華亭) 위지현이 기별(寄別) ㅎ디 ‘종사(宗師) 송강부(松江府)의 니르러 제스(諸士)를 탁용(擢用) ㅎ여 **학(學)의 드리 고을 향시(鄉試)**를 뵈고 인 ㅎ여 회시(會試)를 ㅎ다 ㅎ니 존공(尊公)이 질자(姪子)와 서랑(婿郎)을 돈(豚兒)와 동행(同行) ㅎ게 ㅎ라’ ㅎ앗거늘(3회)

정병옥은 ‘학에 드리’의 구절을 빼놓고 인용하였는데, ‘학에 드리’라고 한 이 구절이야 말로 왕석작의 ‘입학’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즉 종사가 선비를 선발함으로써 學, 즉 學宮에 들도록 한 뒤에 고을의 향시를 보기 때 문이다.³³⁾ 바로 뒷부분에서 왕석작은 松江府 上海縣에 이르러 鄉試의 나아가 글을 지어 案首로 뽑힌 후에 다시 書室에서 부지런히 공부하여 향시에 나아가 解元이 되었다고 하여 鄉試를 두 번 보는 것으로 서술된다.³⁴⁾ 위의 인용문을 고려할 때 왕석작이 본 첫 번째 시험은 종사가 송강부에서 시험을 봐서 선비를 가려 뽑아 ‘학에 드는’ 절차에 해당된다. 즉 첫 번째 시험은 ‘學宮에 입학하기 위한’ 선발시험인 것이다.

여기에서 학교는 오늘날처럼 정규수업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과거제도의 일부이다.³⁵⁾ 따라서 왕석작이 정규수업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학궁’에 들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청나라 때 소설인 <儒林外史>에서도 縣試에 합격한 사람들은 지현이 부임한다거나 새로 학정관이 온다거나 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정규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³⁶⁾, <평산냉연>의 주인공들은 모두 왕석작처럼 따로 정규수업을 받지 않고 會試와 殿試 등의 과거시험에 응하고 있다.³⁷⁾ 이 점에서 <낙천등운>은 분명 우리

33) 심사서에는 ‘학에 드리’ 부분을 그냥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앞의 ‘제스를 탁용 ㅎ여’ 부분과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학의 드리’의 주체를 宗師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뒤의 ‘고을 향시를 뵈고’에서 향시를 보는 주체는 선비이라는 점에서 ‘학의 드리’의 주체는 종사로 보기 어렵다.
34) “싱(生)이 ㅎ여 송강부(松江府) 상희현(上海縣)의 니르러 향시(鄉試)의 나아가 글을 지으니....인(因) ㅎ여 서실(書室)의 고요히 이셔 일야(日夜)의 학업(學業)을 브즈러니 ㅎ야 향시(鄉試) 다다라민 위공조로 더브러 시소(試所)의 나아가 또 ㅎ원(解元)을 ㅎ니”(5회)
35) 루선, 조관희 역주, 『중국소설사』, 소명출판, 2004, 483면의 각주 11) 참조.
36) 최승일 등 공역, 『유림외사』, 여강, 2006 참조.
37) 박재연·김영 교주, 『평산냉연』, 이회문화사, 2003, 71-72면.

소설보다는 중국소설에 더 가까운 면을 보이고 있다.

‘종사’라고 하는 별도의 시험관이 등장하는 것 외에도 향시, 회시를 거쳐 전시를 보는 절차도 그러하다. 조선의 과거제도도 원칙적으로는 初試, 覆試, 殿試로 나누어져, 초시는 지방에서 보는 향시였고 복시는 서울에 올라 보는 회시였다.³⁸⁾ 그런데 우리나라 소설에서 주인공이 향시를 거쳐서 회시를 본 다음에 전시를 보는 과정이 서술된 작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창선감의록>이나 <구운몽>, <옥루몽> 등에서는 지방의 선비인 주인공이 향시를 보는 과정은 서술되지 않고 단지 경사에 이르러 시험을 보는 과정만 서술된다. 주인공이 경사에 있다가 시험을 보는 것으로 서술되곤 하는 대부분의 장편대하소설에서도 주인공은 단 한 차례의 시험만으로 과거에 급제한다. 반면에 명·청대 중국소설에서는 대체로 縣試나 府試, 그리고 鄉試를 거쳐서 會試와 殿試에 나아가는 것으로 서술된다. 예를 들어 <평산냉연>의 주인공 연백함은 송강부 화정현의 시험에서 案首로 급제한 뒤에 남경의 향시에서 해원이 되며 이후에 회시와 전시에 응시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소설에서 향시와 회시를 보는 장면이 서술되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 이는 우리나라의 과거제도에서 초시, 복시, 전시의 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던 현실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우리나라에는 초시, 복시, 전시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정기 시험인 式年試 외에도 별도의 別試가 있었다. 別試에서는 초시와 복시를 거치지 않은 幼學도 응시가 가능하였는데, 조선후기에는 별시가 빈번하게 행해지면서 사실상 식년시의 절차는 의미가 없었던 듯하다.³⁹⁾ 소설에서 향시와 회시의 절차가 서술되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러한 현상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소설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과거제도의 측면에서도 <낙척등운>은 우리소설보다는 중국소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고찰한바, <낙척등운>이 어휘나 서술 면에서뿐만 아니라 청루의 풍속이나 과거제도의 내용 면에서 중국 및 중국소설과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소설과는 이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8)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2004.

39) 생원이나 진사가 아닌 사람이 문과를 보는 경우 幼學이라고 하는데, 영조 이후에는 幼學의 비중이 생원이나 진사보다도 많았다고 한다.(이성무, 앞의 책, 125-131면.)

2.2. 우리 소설과의 친연성

앞서 <낙천등운>과 중국소설의 유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런 면만 본다면 <낙천등운>은 중국소설의 번역 혹은 번안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풍에도 불구하고 <낙천등운>을 중국소설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낙천등운>에는 우리의 소설적 전통과 연관되는 특징들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중국소설 <경화연>을 <제일기연>으로 번역한 홍희복은 그 서문에서 우리나라 소설은 “즈녀를 실산하야 오린 후 츠긋거는 혼인에 마장이 잇서 간신히 연분을 날우거는 처첩이 식투하야 가정이 어즈러워 변괴 빅출하다가 늦가야 화락하거는 일즉 궁곤이 즘심타가 종년부귀 극진하거는 환로의 풍파를 만는 만리의 귀향가고 일쥬의 형벌을 당하다가 마츄니 신원설치하거나”⁴⁰⁾하여 그 내용이 비슷비슷하다고 비판하였다. 홍희복이 상투적이라고 지적한 자녀의 실산, 혼인의 마장, 일찍 궁곤하다가 종년의 부귀함, 신원설치 등은 <낙천등운>에도 나타난다.

<낙천등운>은 엄승으로 인해 집안이 몰락하였다가 우여곡절 끝에 과거에 급제한 뒤 국가에 공을 세워 집안을 일으키는 왕석작의 일대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 여기에 왕석작이 연화춘에 있을 때에 혼인한 동예아와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면서 결국 공식적인 부부로 인정받게 되는 과정을 그린 혼사장애가 결합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우리소설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의 마장만 하더라도 중국 재자가인 소설의 주 내용으로, 왕석작과 동예아의 혼사장애에 주목해 본다면 <낙천등운>은 중국 재자가인 소설과 유사하다. 그러나 <낙천등운>에서는 두 사람이 혼인하기까지의 우여곡절보다는 혼인한 뒤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예아와 왕석작의 애정이 왕석작 가문의 회복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자가인 소설과 거리가 있다. 왕석작이 “내 처엄 부인을 마즈미 식(色)을 취하미 아니라. 선인후스(先人後嗣)를 위하엿더니”(10회)라고 하는 데서 이 점이 잘 나타난다.⁴¹⁾

40) 박재연·정규복 교주, 『제일기연』, 국학자료원, 2001, 22면.

41) 송성옥은 <옥교리> 등의 재자가인 소설을 우리나라 소설을 비교하면서, <옥교리>에서는

이 점은 동예아의 캐릭터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여주인공 동예아는 애정에 적극적이지 않다. 선행연구에서도 동예아가 상황과 대결하거나 이를 극복하기보다는 상투적인 자결의 방법을 택하고 있기에 세속적 욕구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⁴²⁾ 동예아의 이 같은 면모는 혜랑이 애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先人の 後嗣’를 위해 왕석작이 택한 여성은 정조를 지키는 정숙한 여인이어야 했던 것이다.

동예아의 정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朱標’이다. 동예아의 아버지 동전책은 병든 앵무새를 고치는 과정에서 얻은 피로 딸의 팔에 주표를 찍는다.⁴³⁾ 아버지 없이 삼촌의 주선으로 혼인한 동예아는 혼인한 뒤에도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 하여 동침하지 않아서 주표를 지킨다. 그리고 왕석작은 동예아의 주표를 보고 “유충훈 나히 이런 놉흔 지식과 몹은 절개를 탄복”한다. 여기에서 주표는 동예아의 순결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징표이다. 왕석작과의 혼인은 돈에 눈이 먼 동예아의 삼촌 동전책과 창기를 구하는 창모 후마의 음흉한 속셈이 맞아떨어져 이루어졌으며, 동예아는 혼인한 후에 얼마 동안 청루에 머물기까지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왕씨 집안 며느리가 될 동예아의 순결을 입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던 것이다.

<낙천등운> 이외의 우리나라 소설에서도 朱標는 여성 등장인물의 정조를 알려주는 중요한 모티프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⁴⁴⁾ 주표는 처녀성을 단번에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서사적으로 긴요하다. <창선감의록>에서 월화의 어머니는 월화의 臂紅을 확인한 후, 월화의 순결을 지켜준 윤여옥의 의로움에 감탄한다. 또 주표는 여성 주인공을 의심과 모략에서 구해주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옥루몽>에서 기녀 벽성선은 주표로 인해 음란한 기

등장인물의 개인성이 부각되지만 우리소설에서 주인공은 가문의 일원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송성욱, 『17세기 중국소설의 번역과 우리소설과의 관계』, 『한국고전연구』 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80-81면.)

42) 이상택, 앞의 논문.

43) “농서 장시 병든 앵무새를 푸니 비록 병든나 언어를 기묘히 흐거늘 공이 스고 앵무 병 고치는 사람을 청하야 칩 주미 잉혈이 혼 되나 혼지라. 너으를 불너 일점을 잉도 궤치 직고 좌비상의 쓰디 모년월일의 성티촌 분장의셔 느니 명은 예아오 즈는 명원이라 흐엇더라”(2회)

44) 이규경이 『박물지』를 거론하면서 세간에서 말하는 ‘앵혈’이 도마뱀의 일종인 守宮에게 丹砂를 먹여 그 몸이 빨갱게 된 것을 처녀의 몸에 찍어 정조를 확인하였던 것이 와전된 것이라 한 것을 보면(<守宮砂辨證說>, 『오주연문장전산고』) 앵혈로 처녀성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소설에서만 나타나는 허구적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

녀라는 모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소설에서는 주표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의 재자가인 소설에서도 여주인공의 순결은 강조되지만⁴⁵⁾, 주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호구전>에서는 두 남녀주인공의 순결을 의심한 사람들에게 의해 여주인공의 순결을 검사하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주표에 대한 언급은 없이 신체검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진동원에 의하면 중국에는 ‘처녀성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穩婆’가 있었다고 한다.⁴⁶⁾ <호구전>과 같은 중국소설에서 ‘처녀성 검사’는 팔위의 주표를 확인하는 것보다 생식기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낙천등운>에서 주표가 서사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이 작품이 우리의 소설적 전통 안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낙천등운>의 작가가 여성의 순결 자체를 절대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작품에는 위기의 상황에서 몸을 던져 주인공을 도와주는 유모 정마란이 등장하고 여주인공 동예아가 실절할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를 대신하는 화연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남성들에게 몸을 팔던 기녀 혜랑도 등장하고 있다. 이들 여성들은 남녀 주인공을 도와주는 인물들로서, 서술자는 이들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낸다. 창기였던 혜랑은 왕석작의 친구 임윤의 기실부인이 되고 화연은 상인인 유은의 부인이 되며 유모 정마란이 동예아의 삼촌 동전체의 부실이 되는 것으로 결말 짓는 것을 보면 이들이 몸을 수단화 한 것에 대해 서술자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순결 자체를 절대적 가치로 보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혜랑과 화연과 비슷한 처지의 하선, 원매 등은 어려움 속에서도 순결을 지키는 인물들로 나온다. 그리고 작품 후반부에서 혜랑은 “하선의 정절 보전함과 자가의 일신이 그릇 창가의 오욕(汚辱)하던 일을 비겨 보

45) 17세기 이후 재자가인 소설에서는 혼전 순결이 중시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Huang의 *Desire and fictional narrative in late imperial china*,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 Asia Center, 2001, p.210, 참조.

46) 진동원은 한나라 환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잡사비신』과 『장황후외전』의 내용을 거론하면서 처녀성을 검사하는 穩婆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진동원, 앞의 책, 318면.) 『잡사비신』은 우리나라에도 알려졌던 책이다.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처녀를 나체로 검사하는 대목이 외설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이를 한나라 때 책으로 보고 있다.

“미 난연 슈괴하야 마음을 정치 못”한다(4회).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를 사용한 이유는 동예아와 하선, 원매가 왕석작의 처와 첩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낙천등운>에서 정조와 순결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문의식과 결부되어 상대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사건과 허구를 결합하는 방식에서도 우리 소설다운 특징이 나타난다. <낙천등운>은 역사적 사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 명나라 역사에 정통한 작가의 所作처럼 보인다. 특히 작품 서두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서술이 두드러진다. 양계성이 대동에 馬市를 여는 일로 업승과 다투어 좌천되었다가 이듬해에 오랑캐의 침입이 있자 다시 등용된 일, 양계성이 업승을 탄핵하다가 옥에 갇히고 사조빈(작품에는 도스빙으로 표기)이 양계성을 구하려다 헤를 입은 일 등은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⁴⁷⁾ 양계성이 처형당하기 전에 읊는 두 편의 시도 실제 양계성이 지은 작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양계성이 죽었을 때에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양계성과의 약속을 지켜 자신의 딸을 양계성의 둘째아들과 혼인시킨 일 등은 양계성의 묘지명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⁴⁸⁾

그러나 명나라 가정년간의 역사적 사실이 부분적으로 서술되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인 서사에서는 허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명나라 때 실존인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의 행적이나 관계는 허구적으로 설정되었다. <낙천등운>에서는 왕석작이 왕세정의 사촌이며 양계성의 외조카이고 동전책이 왕석작의 장인이다. 그리고 추응룡은 왕석작의 아버지 왕도의 문하생이며 임윤은 왕석작과 과거에 급제한 동기이다. 또한 업승과 호종현의 동생은 왕석작에게 혼인을 강요한다. 이들 인물들은 모두 명나라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존인물이지만, 이들과 왕석작의 관계는 모두 작가가 꾸며낸 것이다. 역사적 인물들은 인물의 이미지에 따라 왕석작의 일대기적인 구성에 맞게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역사적 인물을 허구적인 서사 안에 배치하는 방식은 우리 소설에서 자주 나타난다.⁴⁹⁾

47) 역사적 사실과의 관련 여부는 구경순, 「<낙천등운>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1 참조.

48) 徐階가 쓴 <贈太常少卿諡忠愍楊公墓誌銘>에 “兵部主事, 今中丞王君遴, 歸公喪, 且以女婚其次子”라는 구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49)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고찰된 바 있다. 심경호, 「낙선재본 소설 <구래공정충직절기>에 관하여」, 『정신문화연구』 44, 1991; 이승복, 「<옥환기봉>과 역사의

그리고 <낙천등운>에서는 엄승의 득세와 주인공 가문의 몰락을 결부시키기 위해서 양계성이 왕석작의 외숙부이면서 養父가 되는 것으로 설정한다. 왕석작의 아버지 왕도는 미리 벼슬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엄승의 화를 입지는 않았다. 왕도는 세상을 뜨면서 어린 왕석작을 양계성에게 부탁하는데, 양계성이 처형되면서 왕석작의 집안이 몰락하는 것으로 서술된다.⁵⁰⁾ 그리고 이후에 추응룡의 상소로 엄승이 몰락하면서 그동안 신분을 숨겼던 왕석작은 本宗을 회복하고 家廟를 봉안하여 명실상부하게 가문을 회복하게 된다. 이처럼 양계성의 죽음이나 추응룡의 상소 등의 역사적 사건은 왕석작 집안의 몰락과 회복의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송성욱은 우리 소설에서는 역사적 사건이 자주 설정되면서도 소설의 관심이 역사적 사건 자체가 아니라 주인공 가문의 존립에 있다고 논한 바 있다. 주인공 가문의 번영과 창달에 대한 관심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관심보다 크다는 것이다.⁵¹⁾ 역사적 사건이 주인공 가문의 존립과 연결되는 방식은 <낙천등운>에서도 나타난다.

이상으로 살펴본바, <낙천등운>은 부분적인 서술에서 우리소설과 이질적인 면이 존재하는 한편, 전체적인 서사구조면에서는 오히려 우리소설의 전통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3. 소설 구성의 상호텍스트성

3.1. 텍스트의 결합

그러면 <낙천등운>이 우리소설과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함께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텍스트의 轉寫과정에서 나타난 변화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존하는 <낙천등운>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

소설화], 『선청어문』 28, 서울대 국어교육과, 2000, 임치균, 「18세기 고전소설의 역사 수용 일양상」, 『한국고전연구』 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이지영, 「<문장풍류삼대록>에 나타난 소설의 역사 수용 양상」, 『장서각』 1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50) 여기에서 왜 굳이 왕석작을 양계성의 아들로 설정하지 않았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아마도 왕세정과 왕석작을 사촌지간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51) 송성욱, 앞의 논문, 88-90면.

에 소장되어 있는, 이른바 낙선재본이 유일본이다. 그런데 <낙천등운>은 회장이 나뉘는 것과 분권이 일치하지 않아, 3회, 6회, 11회는 두 권에 걸쳐 필사되어 있다. 아마도 장수를 일정하게 맞추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한 회가 나뉘는 듯하다. 이처럼 회장과 분권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현존 <낙천등운>이 창작 원본이 아님은 분명하다.

전체 5권 5책 중에서 마지막 권은 앞의 다른 권과는 필체도 다르고 표지에 장수를 표시하지 않았다. 표제도 ‘낙턴등운’이어서 ‘낙천등운’으로 표기된 다른 권과 다르다. 또한 권4의 말미와 권5의 중복 서술된 내용을 보면, 본문에서도 표기와 어휘의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권4와 권5는 ‘안정/안당’, ‘한치/흔치’, ‘침소/침쇼’처럼 동일한 어휘에 대해 표기가 다르며 ‘피 흥미나라/저허흥미나라’와 같이 어휘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표기만 본다면 권4는 권5에 비해 나중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권5 내에서도 필체 및 표기가 다르다. 총 111면 중에서 44면 이후는 필체가 가늘고 흘림이 강하며 표기도 다르다. 예를 들어 앞부분에서 ‘침쇼’라고 한 단어가 44면 이후에는 ‘침소’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였을 때 적어도 <낙천등운>의 필사자는 두 사람 이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필사시기도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회장제목의 구성도 다소 어수선하다. <낙천등운>은 12회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구가 대응되는 방식과 달리 단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회장제목을 살펴보면, 2회와 3회, 4회와 5회, 6회와 7회가 짝을 이루고 8회와 10회, 11회와 12회가 서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1회와 9회는 다른 회장제목과 글자 수가 다르다.⁵²⁾

게다가 9회와 10회에는 서술상 착종이 발견된다. 10회에서 왕석작은 아내를 찾아 헤매던 중에 원성으로 가서 한 절에 이르는데, 여기에서 벽 위의 한

52) 한글로만 적힌 각 회장 제목의 내용을 추정하여 보면, ‘1회 체류뉴함연화진(涕流謬陷煙花塵)/ 2회 봉호구둥도상니(逢好逑中遭相離)/3회 니원양안신재합(離駕鴛安身再合)/4회 조풍우부녀상봉(遭風雨父女相逢)/5회 도호구둥입낭혈(逃虎口重入狼穴)/6회 계관정점개운노(掣官庭漸開雲路)/7회 등운농이회상반(登雲龍離懷相伴)/8회 방부인원리도방(訪夫人遠離土方)/9회 원성사제사유중운(元城****重胤; 추정이 어려운 대목에 *표시함)/10회 도난리강상중회(逃亂離江上重會)/11회 방향경천개환회(芳香驚天改換位)/12회 신원설치영선친(伸冤雪恥榮先親)’가 아닐까 한다. 다만, 11회는 그 의미를 정확하기 파악하기 힘들다.

시와 함께 “낙양(洛陽) 동명원은 쓰노라”라고 쓴 것을 발견한다.⁵³⁾ 그런데 동예아가 해당 글을 남기는 9회에서는 절 이름이 ‘원성사’가 아닌 ‘중운사’로 서술된다. 그리고 9회에서 중운사의 노승은 남장한 동예이에게 왕석작의 아버지가 중운사를 중수하고 아들 왕석작을 얻은 사연을 말해 준다.⁵⁴⁾ 그러나 10회에서 왕석작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으며, 서술자 또한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 이름은 ‘중운사’가 아닌 ‘원성사’이다.⁵⁵⁾ 전사 과정에 나타난 변개가 아니라면⁵⁶⁾, 텍스트 자체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10회에서는 또한 원매가 옥에서 겪는 위기에 서술하면서도 착종을 보인다. 왕석작이 요동 정벌을 떠났을 때, 賊勢가 성해지자 황제는 왕석작이 중도에 지체할 탓이라 하면서 왕석작의 처자를 옥에 가두라고 명한다. 이 때 원매라는 시비가 동예이를 대신해서 궁녀들의 옥에 간하는데, 호씨 일가의 서자인 호동태가 여장을 하고 궁에 들어가 원매를 검탈하려고 하자 “문득 힘을 다하여 호 번 박춘니 공дум에 잣바지거늘 촌 칼을 썬혀 그 비를 지르”고 호동태를 죽인다.⁵⁷⁾ 원매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 겪는 고난은 이 사건 뿐이다. 그런데 그 뒤 무사히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원매가 왕석작에게 궁에 갇혀있을 때의 일을 이야기 하면서 “홀는 진찬(珍饈)으로 드러와 권호거늘 의심호야 먹지 아 낫더니 식로 드러온 의네(醫女) 먹고 즉시 죽”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독살음모는 앞에서는 전혀 서술된 바가 없어, 앞뒤 서술내용이 어긋나고 있다.⁵⁸⁾

53) ‘명원’은 바로 동예이의 字이다.

54) “국초(國初)의 지상(宰相)이 무후(無後)호야 이 절을 짓고 불상을 안치 경운암이라 호앗더니 그 후의 〽들을 나호미 크게 슈보(修補)호였다가 둥간(中間)의 연군이 불을 내어 전각(殿閣)을 타우니 제승(諸僧)이 니산(離散)호고 폐호였더니 정덕(正德) 말의 절강(浙江) 왕상세 보시고 둥슈(重修)호야 일홈을 둥윤사(重胤寺)라 호니 후 이십 년의 아들을 나호시다 호더이다.”

55) 10회에서 ‘원성사’에 대한 언급은 여러 번 나온다.

56) 12회에서는 모든 환란을 이겨 낸 왕석작 부부가 함께 경사로 올라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들 부부는 중도에 ‘중운사’에 들러 옛 일을 회상한다. 그리고 금백을 내어 절을 중수하자 노승들이 “석년(昔年) 선노예(先老爺) 순안어스(巡按御史)로 둥슈(重修)호앗더니 이제 어스노예(御史老爺) 또 단청(丹青)의 비출 더오시니 괴특흔 일어로소이다”라며 감탄한다. 이렇게 보면 10회의 내용이 후에 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12회가 속한 권5가 나중에 필사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선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57) 이 부분에서 칼로 찢은 사람이 호동태인지 원매인지 문장이 불분명하다. 그러나 뒤에 원매가 살아서 나가기 때문에 원매로 본다.

58) 혹시 원매가 왕석작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호동태의 검탈위

이처럼 체제가 통일되지 않은 회장제목이나 서술상의 착종은 애초 원본이 가지고 있는 결함일 수도 있고 轉寫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현재 유일본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쪽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 유독 9회와 10회 부분에서 이 같은 착종이 발견되는 점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나마 전사과정에서 개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처음부터 텍스트가 다소 엉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3.2. 이전 소설의 차용

<낙천등운>의 지명과 역사서술이 구체적이며 정확하다는 이미 앞에서 지적했다. 청루의 풍속과 과거제도 등 사회상 및 제도도 명·청대의 풍속에 맞게 서술되고 있다. 이처럼 명·청대의 풍속이나 역사, 지명을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었다면 원본이 중국소설이거나 아니면 작가가 상당한 교양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낙천등운>에 나오는 지명은 중국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곳들이다. 원성사가 있는 북경 大名府는 <호구전>의 주인공 칠중옥의 집이 있는 곳이고 낙양은 <평산냉연>의 남주인공의 한 사람인 평여형의 출신지이며 송강의 화정현은 연백함이 府試에 응시하여 합격한 곳이다. 낙양과 송강은 이들 소설 외에도 중국 재자가인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낙천등운>의 지명서술이 중국 소설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다.⁵⁹⁾

<낙천등운>에 서술된 역사적 사실도 역사서가 아닌 중국소설의 영향일지 모른다. 명나라 가정년간은 명청대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대이므로, <낙천등운>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명나라의 역사적 상황을 <明史>와 같은 역사서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鳴

협을 감추고 다른 사건을 꾸며낸 이유가 분명치 않다. 만약 원매가 어떤 이유로 거짓말을 하였다면 서술자는 거짓말한 이유를 밝혔을 것이다.

59) 지연숙은 <숙향전>의 공간구도가 <삼국지연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숙향전> 뿐만 아니라 중국을 배경으로 한 우리 소설에서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지연숙, 「<숙향전>의 세계 형상과 작동 원리 연구」,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 참조)

鳳記>에서는 엄승과 엄세번 부자, 조문화, 언무경의 부패와 횡포가 풍자적으로 그려지는 가운데 하연과 양계성 등이 이들 세력에 맞서다 죽고 동전 채이 오시래, 장학루와 함께 엄승을 탄핵하다 유배를 간다.⁶⁰⁾ 이 작품의 중심은 동문수학한 추응룡과 임윤으로 이들은 과거에 합격 후 엄승에게 인사를 가는 대신 양계성의 무덤을 찾아가는 바람에 엄승의 미움을 받고 변방으로 부임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두 사람이 엄승과 엄세번이 몰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명봉기>가 <낙천등운>에 직접적인 영향이 주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가정년간을 배경으로 한 정치 갈등의 양상은 소설이나 회곡과 같은 텍스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⁶¹⁾

또한 서사의 차원에서도 중국 소설과도 관련이 있을 듯하다. 왕석작과 동년 급제한 임윤은 부친이 경사에 가면서 빛을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창루를 구경에 들러 기녀 혜랑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가진 財帛을 모두 창모에게 맡긴다. 창모는 임윤이 혜랑과 일생을 함께 하려고 하자 강도를 시켜 임윤을 구렁에 빠뜨린다.⁶²⁾ 임윤과 혜랑이 자신의 사연을 왕석작에게 전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서술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玉堂春落難逢夫>의 내용과 비슷하다. 또 앞서도 밝혔듯이 며느리를 들인다고 하면서 양가의 여자를 사서 창녀로 만드는 과정은 <金雲翹傳>과 유사하며 동예아가 왕석작과 혼인하면서 먼저 다섯 개의 시제를 주고 이에 맞게 각 열 장의 시를 짓도록 하는 것은 <옥교리>나 <평산냉연> 등 재자가 인 소설의 분위기를 풍긴다.

<낙천등운>에는 또한 우리나라 소설과 유사한 대목도 보인다. 예를 들면 <낙천등운>의 1회에서 나이 어린 왕석작은 엄승이 득세하면서 하연과 증선이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부친에게 “군지 도정의 이시미 가히 언흐

60) <鳴鳳記>, 『續修四庫全書』, 上海古籍出版社, 2002; 황현국, 「<鳴鳳記>연구」, 단국대학교 논문집 29, 1995에서 소개한 내용 참조.

61) <옥환기봉>은 역사서보다는 소설 <동한연의>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것을 보면 <낙천등운>도 역사서가 아닌 소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임치균, 앞의 논문 참조)

62) 혜랑은 “디객(待客)흐얀 지 삼년의 혼 귀가(貴家) 공주(公子)를 만나니 첩을 연연(戀戀)흐야 지백(財帛)을 다 창모(娼母)의게 맞지고 머물 의스를 두어 일심 가족(嫁囑)흐를 청흐니 강도(強盜)를 숨겨 빙인(氷涯)의 구울너 구획(溝壑)의 찌르치고.”라고 하였고, 임윤은 왕석작에게 “가친이 경스의 가고 쇼제로 흐야곰 빗 쥘엇던 슈빅 금을 바다오라 흐미 슈습흐야 가다가 길히서 창누를 구경흐라 드러터니 인흐야 이르러 혼 경계를 당흐야 계오 굴형의 목숨을 보전흐니”하고 한다.

암죽 흐거든 언흐고 언치 못흐암죽 흐거든 물너가라 흐니.....이 썩는 비록 말을 하나 결단코 무익흐고 흐갓 문호의 화를 부를지니 부친이 밧비 전니의 도라가샤 썩를 기다”릴 것을 권한다. 이 장면은 <창선감의록>의 1회에서 화진이 화옥에게 물러날 것을 권하는 장면과 흡사하다.

또한 10회에서 왕석작이 동소저를 찾아 해매다가 원성사에 가서 동예아가 “슬프다 황이 구소를 일흐니 쏘다른 빗치 벽파의 썩러지도다”라고 쓴 것을 보고 부인이 자결하였다고 생각하여 상심하고 슬퍼하면서 부인을 위해서 죽 념하는 장면은 <사씨남정기>의 유연수가 회사정에서 부인의 글을 발견하고 슬피 울다가 속소로 내려와서 부인을 위해 제문을 짓는 장면과 흡사하다.

또 왕석작이 엄승이나 호시랑 같은 권세가로부터 혼인 압력을 받으면서 동예아가 고난을 겪게 된다거나 또 호소저와 혼인한 뒤에 애정을 주지 않아서 호소저의 고모인 황귀비가 동예아를 제거하고자 한다거나 하는 내용들은 우리 대하소설에서 흔히 나타난다.

물론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해서 <낙천등운>이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특정 작품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창선감의록>이나 <사씨남정기> 혹은 <金雲翹傳>, <玉堂春落難逢夫> 등과 유사한 장면이 발견되는 것은 이들 작품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작품의 영향을 받은 다른 텍스트를 차용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이들 텍스트에 영향을 준 선행 텍스트를 차용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유일본으로 전해지고 있는 <낙천등운>의 텍스트는 필사본이기 때문에 전사과정에서 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경위가 어떻든 간에 현재 <낙천등운> 텍스트에 이전의 여러 소설 텍스트들이 중층적으로 겹쳐져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4. 텍스트 형성 배경에 대한 추론

<낙천등운>은 중국소설의 번안일수도 있고, 짜깁기 형태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소설일 수도 있다. 혹은 중국의 번역, 번안소설이 轉寫되면서 우리나라의 소설 전통 안에서 개작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 <낙천등운>의 ‘진짜’ 모습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도대체 <낙천등운>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여러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방식이 우리 고전 소설에서 그리 낮설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이 같은 상호텍스트성이야말로 <낙천등운>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중국소설인지 우리 소설인지 판단하기 힘든 복잡한 모습야말로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이다.

실사 <낙천등운>이 특정 중국소설의 변안이라고 해도 왕석작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역사적 인물과의 관계를 허구적으로 설정한다거나 앵혈 모티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낙천등운>은 원래의 중국소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이가 轉寫者의 개작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소설의 번역을 다시 개작하였다면, 현재 전해지는 <낙천등운>이 중국소설과 다른 분위기의 텍스트가 된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⁶³⁾ 결국 현재의 <낙천등운>은 중국소설이 우리나라의 소설적 전통 안에서 재구성된 텍스트이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소설의 번역물로 볼 수는 없다.

반대로 <낙천등운>이 특정 중국소설의 변안이 아니더라도 역시 ‘순수한’ 창작소설로 보기는 힘들다. 우리나라 작가에 의한 ‘창작’일지라도 창작 과정에서 중국 및 우리나라의 여러 소설들을 활용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특정 작품을 변안한 것이 아니라도 부분적으로나마 중국소설이 차용된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변안이든 아니든, <낙천등운>이 창작과 변안의 중간에 놓인 텍스트라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물론 중국소설이나 전대 소설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나아가 차용하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소설에서 결코 낮설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낙천등운>의 텍스트 구성방식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소설을 지으면서 이전의 다른 소설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상호텍스트성은 우리 고전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낙천등운>에서는 그 정도가 훨씬 심하고 차용된 텍스트도 중

63) 조동일은 중국의 소설이 변안되면서 원작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변개되는 동시에 또 필사본, 방각본, 활자본으로 거듭 나오면서 변이의 폭이 더욱 확대된 양상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낙천등운>도 그러한 경우일 수 있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3판, 지식산업사, 1994, 112-116면.)

국과 우리나라 소설을 넘나든다. 이 같은 <낙천등운>의 과도한 상호텍스트성은 우리나라의 여느 소설과는 다른 독특한 면이 있다. 현재 유일본으로 전승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낙천등운>의 특징이 전사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轉寫 과정에서 일부 개작이 있을 수는 있어도 현재와 같은 상호텍스트성은 아마도 애초에 텍스트가 형성되었을 때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같은 과도한 상호텍스트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점에서 <낙천등운>의 텍스트 형성에 상업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가 한다. 먼저 왕석작의 몰락과 성공은 방각본 영웅소설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왕석작의 몰락을 더욱 비참하게 하는 것이 연화춘이다. 중국소설에서 차용한 자극적인 소재로 인해 흥미를 끌고자 한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 정마란이나 혜랑, 화연 등이 위기 때마다 몸을 이용하는 것은 중국 음사소설의 분위기를 풍기기 때문이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동예아와 하선의 정절을 칭찬하고 이들의 실절을 경계하는 듯하지만, 이들의 행위가 흥미소로 활용된 감이 있다.

또한 <낙천등운>의 결말이 다소 무리하게 부연되는 것도 상업적 의도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 왕석작을 중심으로 하는 일대기적인 서사구도로 보면 엄승이 몰락하면서 왕석작이 가문을 회복하여 부인 동예아와 다시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무난하지만, <낙천등운>은 그 순간 다시 늑혼으로 인한 혼사장애가 시작된다. <낙천등운>에서 늑혼으로 인한 혼사장애는 두 차례로 설정된다. 먼저 엄승이 자신의 손녀와 혼인시키려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왕석작을 일부러 변방에 보내지만, 왕석작이 개선하고 엄승이 몰락함으로써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동예아가 본격적인 수난을 겪는 것은 호종헌과 황귀비의 조카이자 호시랑의 딸 때문이다. 왕석작이 호소저를 사랑하지 않자 황귀비는 동예아를 죽이려 하고 이 때문에 동예아는 두 번이나 男裝을 하고 도망친다. 호소저로 인한 혼사장애는 왕석작이 가문의 명예를 회복한 뒤에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결말은 지연된다.

이러한 짜깁기적 구성과 부연에서 <낙천등운>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텍스트가 아닐까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심경호는 낙선재본 소설 중에 일부가 세책본을 저본으로 하여 초사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는

데,⁶⁴⁾ <낙천등운>은 바로 그러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5권을 제외하고 4권까지 표지에 각 권의 장수를 표시한 점, 그리고 책장의 모서리에 여백을 남기는 이른바 ‘침자리’가 나타나는 점 등은 일반적으로 세책의 특징으로 지적되어 온 바와 일치한다.⁶⁵⁾

그렇다면 이를 번안하거나 창작한 작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을까? <낙천등운>의 내용으로 볼 때 작자는 중국소설에 익숙한 사람이다. 중국소설을 널리 읽을 수 있으려면 한문이나 백화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작자는 한문학적 소양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사람이다. 비교적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작자의 교양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낙선재본 소설이 발견된 당시에 이들 소설의 독자로서 주목을 받았던 윤백영 씨는 “지체의 상하를 다 알고 세상 물정에 밝은 이름 없는 선비가 슬그머니 세책집에 판다.”고 하면서 이를 “朝臣들이 가져다 내전에 은밀히 바친다.”고 하였다.⁶⁶⁾ 윤백영 씨가 덕온공주의 손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듯하다. 다시 말해서 낙선재본 소설 중에는 세책가에서 만들어진 소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84년을 전후하여 “이종태씨가 奉命하여 그 집에다가 수십인 文士를 두고 오랫동안 중국소설을 번역한 것이 근 백종이 되었으니”라고 전한 가람 이병기의 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⁶⁷⁾ 이종태가 고용한 문사들은 중국 백화소설을 읽을 수 있는 식자층이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전문적으로 소설을 번역하였던 사람들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번안이든 창작이든 간에 <낙천등운>의 작자는 이들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64) 심경호, 「조선후기소설고증」, 『한국가문소설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2, 97-98면.
65) 송성욱은 <천수석>이 역사적 사실에 비교적 충실하면서도 축조된 흔적이 있으며 앞뒤의 서술이 맞지 않는 산만한 구성을 가진 텍스트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특정 독자를 위해서 서둘러 창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일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송성욱, 앞의 논문, 2004, 25면.) 이러한 <천수석>의 특징은 <낙천등운>과 유사한 면이 있는데, 혹시 세책가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66)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 1966.8.25, 4면.
67) 이병기, 「조선어문학명저해제」, 『문장』 2권 8호, 1940.10, 231면. 비슷한 내용이 『국문학전사』에도 있는데, 『국문학전사』에는 “그 집에다 수십인 文士를 두고”라고 한 대목이 “文士 수십 명을 동원하여”로 바뀌었다. 이종태가 자신의 집에서 번역을 했을 경우 세책가와 관련이 더 높아진다. 시기적으로 선행하는 『문장』의 기록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 점에서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찾지는 못했다. 낙선재본 소설의 형성에 대한 자료가 좀 더 보완되어야만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5. 결론

<낙천등운>은 독특한 내용으로 주목받았지만, 지금까지도 국적 논란이 있는 작품이다. 이 글에서는 <낙천등운>을 둘러싸고 국적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던 이유가 바로 중국과 우리나라 소설의 전통이 혼재되어 있는 텍스트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국적에 대한 판명보다는 논란을 야기한 텍스트 자체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낙천등운>에서 그려지고 있는 청루풍속과 과거제도는 명나라와 청나라의 풍속과 제도이다. 이 점은 똑같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다른 우리나라 소설에 반영된 청루의 풍속이나 과거제도의 모습과 다르다. 이 때문에 <낙천등운>은 중국소설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역사와 허구를 교직하여 왕석작이 몰락하였다가 다시 가문을 회복하는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소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앵혈을 이용한 주표가 중요한 모티프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 소설과 동일한 면모를 보인다.

이 같은 양면성은 바로 텍스트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되지 않은 듯한 회장제목이나 서술상의 착중으로 볼 때 현재 유일본으로 전승되는 <낙천등운>은 결함이 있는 텍스트이다. 그러한 결함이 轉寫과정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낙천등운>은 그리 정제된 텍스트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 곳곳에 짜깁기의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낙천등운>은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이전 소설을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만들어진 텍스트이다. 즉 짜깁기, 차용, 베끼기 등의 방식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텍스트 구성방식은 아마도 세책가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텍스트

형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낙천등운>은 조선 후기 늘어나는 소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소설을 적절히 짜깁기 하여 만든 혐의가 짙다. 침자리를 남겨 놓는다거나 겉표지 앞에 장수를 적는 등의 일반적으로 세책의 특징이 나타나는 점에서 그 관련성이 더욱 의심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를 확신할 만한 근거는 없다. 낙선재본 소설 중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되던 텍스트가 있었는지 여부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관, 「조선후기 서울의 중간계층과 유흥의 발달」, 『민족문학사연구』2, 민족문학사학회, 1992.
- 구경순, 「<낙천등운>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1.
- 金靜, 강길중 역, 『중국문화와 과거제도』, 중문출판사, 1994.
- 김경미, 「음사소설의 수용과 19세기 한문소설의 변화」, 『고전문학연구』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 魯迅, 조관희 역주, 『중국소설사』, 소명출판, 2004.
- 박일용, 『조선시대 애정소설』, 집문당, 1993.
- _____, 「고소설의 한중 관계-낙서재본 번역소설을 중심으로, 한국 고소설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문, 1997.
- _____, 「조선시대 중국 통속소설 번역본의 연구, 한국의국어대 박사논문, 1993.
- _____, 「完山 李氏 <中國小說繪模本>에 대하여, 『한국고소설사의 시각』, 국학연구원, 1996.
- 박재연 편, 『증조대사전』, 선문대중한번역문헌 연구소, 2002.
- 송성욱, 「17세기 중국소설의 번역과 우리소설과의 관계, 『한국고전연구』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 _____, 「<천수석>의 텍스트 결함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1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 심경호, 「낙선재본 소설 <구래공정충직절기>에 관하여, 『정신문화연구』44,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 _____, 「조선후기 소설 고증」, 『한국가문소설연구논총』(이수봉 외), 경인문화사, 1992.
- 이능화, 『조선해어화사』, 한남서림, 1927.
- 이병기, 「조선어문학명저해제, 『문장』 2권 8호, 1940.
- 이상택, 「<낙천등운 고>, 『한국고전소설의탐구』, 중앙출판, 1981.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2004.
- 이승복, 「<옥환기봉>과 역사의 소설화, 『선청어문』 28, 서울대 국어교육과, 2000.
- 이우성·임형택 편, 『이조한문단편집上』, 일조각, 1978.
- 이지영, 「<문장풍류삼대록>에 나타난 소설의 역사 수용 양상, 『장서각』1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임치균, 「18세기 고전소설의 역사 수용 일 양상, 『한국고전연구』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 정병설, 「낙선재본 <재생연전> 연구-번역양상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16, 1991.
- _____, 『나는 기생이다』, 문학동네, 2007.
- _____, 「이조말기소설의 유형적 특징」, 『한국 고전의 재인식』, 1979.
- 조광국, 「기녀담·기녀등장소설의 기녀 자의식 구현 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0.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3판, 지식산업사, 1994.
- 조희웅, 「낙선재본 번역소설 연구」, 『국어국문학』 62-63, 국어국문학회, 1973.
- 지연숙, 「<소현성록>의 공간구성과 역사인식」, 『한국고전연구』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지연숙, 「<숙향전>의 세계 형상과 작동 원리 연구」, 『고소설연구』24, 한국고소설학회, 2007.
- 진동원, 최수경·송정화 역, 『중국, 여성 그리고 역사』, 박이정, 2005.
- 최귀묵 역, 『취교전』, 소명출판, 2004.
- 최수경, 「재자가인 서사에 나타난 욕망 표현 방식에 대한 고찰」, 『중국어문논역총간』12, 중국어문논역학회, 2004.
- 최용철, 「王翠翹 고사의 변천과 <金雲翹傳>의 작품 분석」, 『중국어문논총』 16, 중국어문연구회, 1992.
- 황현국, 「<鳴鳳記> 연구」, 『논문집』 29, 단국대학교, 1995.
- Huang, *Desire and fictional narrative in late imperial china*,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 Asia Center, 2001.

The study on the affinity and foreignness of
Nakcheon-deungun(낙천등운) to our traditional novel.

Yi, Ji-young

Nakcheon-deungun is unique novel, so attracted the scholar's attention. But someone thought that this was translation of chinese novel. This study is on the uniqueness of the text, which has the both features of korean novels and chinese novels.

Nakcheon-deungun has the foreignness; the manners and custom such as brothel and examination depicted in the text is not similar to that of Chosun and the our traditional novels, but similar to that of Ming or Qing and Ming or Qing novels.

At the same time, *Nakcheon-deungun* has the affinity; The life story of Wang, the hero who had been fallen to the bottom of the social scale but at last regained his status and restored the reputation of his family, constructs the main frame of narrative. In addition, although based on the historical fact, the story was made up by fiction. Most of all, the red mark on the arm that shows the virginity of heroin is not found in the Ming or Qing novel but in the Chosun novel.

This ambilaterality of the text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defect of the text; the discrepancy of discourse and discordance of the chapter's titles. The text was knitted up by adoption and copying of preceding novel. So I inferred that ambilaterality of the text is from the intertextuality of the text, and the intertextuality of the text tells the social background of commercial production of novels. The spaces in the each paper that have the use of turning over leaves with wet finger also show the connections between the intertextuality and the commercial purpose.

Keyword: *Nakcheon-deungun*, translation of chinese novel, ambilaterality of the text, intertextuality of the text, commercial production of novels, a lending library, The novels in the royal palace

접수일자 : 2009. 4. 10 심사기간 : 2009. 4. 20~2007. 5. 10 게재결정 : 2009. 5. 20
--